

켈트 여신 신화 연구*

-아일랜드 여신을 중심으로

김정란**

차례

1. 서론
2. 켈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3. 켈트 여신의 성격과 상징적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켈트족은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진 민족이지만, 그 문화는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켈트 문화와, 서구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켈트 문화가 자연과 꿈과 낭만성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여성에 대한 켈트족의 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켈트 사회 역시 모든 인도 유럽어족 사회처럼 가부장사회였지만, 그리스-로마 문화에 근간을 둔 다른 가부장사회들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켈트족은 여성에게 상당한 권리를 부여했으며, 여성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 이러한 사실은 켈트족의 사회제도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특성은 켈트 신화 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켈트 여신들은 그리스-로마 여신들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녀들은 남성신에게 종속

* 이 논문은 상지대학교 안식년 과제 논문입니다.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이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켈트 여신의 독립성은 <주권 여신>이라는 신화적 개념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켈트 신화 안에서 왕권의 보유자는 남성인 왕이 아니라, 여성인 여신이다. 왕권은 왕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신의 존재로부터 나온다. 여신은 왕권의 궁극적 담지자이며, 그것을 일시적으로 인간인 남성 왕에게 위탁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구에서 켈트적인 것은 바야흐로 대대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 현상 안에서 켈트 신화가 가지고 있는 대안 담론으로서의 위치에 주목하게 된다. 켈트 신화는 상상력과 환상성이 중시되고 있는 탈근대 맥락 안에서 뚜렷한 문화적 적성을 드러낸다. 그 적성의 중심에 켈트 여신 신화가 있다. 우리가 켈트 여신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심어 : 켈트족, 켈트 신화, 주권여신, 켈트 여신, 다누, 마하, 메브

1. 서론

켈트족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이지만, 그 문화는 극서(極西) 유럽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각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켈트 문화가 이처럼 새로운 조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근대적 이성중심주의의 퇴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켈트 문화는 합리성보다는 환상성이 두드러지며,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성을 중시하는 특징으로 이어진다. 여성은, 그 성 자체의 특성을 통해 남성보다 더 자연에 깊이 참여하는 성이기 때문이다.

켈트 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켈트족의 신화이다. 켈트 신화는 세계 신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매우 다른 특성을 드러내 보인다. 켈트 신화는 잘 다듬어진 그리스·로마 신화와는 달리, 매우 원시적이며,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환상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가장 큰 특성은 여신들의 존재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여신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충실한 수행자이다. 그러나 켈트 여신들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그녀들은 가부장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원시 모계 사회의 후계자들이다. 그녀들은 가부장제에 길들여져 있는 멘탈리티에 충격을 주는 원시적 독립성을 간직하고 있다¹⁾. 그녀들의 존재는 탈근대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 어떤 문명권 신화에 나타나는 여신들보다 더욱더 당대적이라고 할 만한 특성들을 보인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켈트 신화에 대한 연구는 상상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문화 환경 안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켈트 신화는 물론이고, 켈트 문화조차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문화사적인 내용과, 신화 스토리는 몇 권의 번역서들을 통해 소개되어 있으나, 학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켈트 신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켈트 여신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켈트 여신 연

1) 켈트 신화는 주로 아일랜드와 웨일즈 문헌 자료들로 남아 있는데, 이 자료들의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 아일랜드 신화가 훨씬 더 원시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웨일즈 문헌은 기독교적 억압의 흔적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원형적 원시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일즈 여신들도 그리스·로마 여신들보다는 훨씬 더 고대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구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켈트 사회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모든 문명권의 신화는 인류 보편의 원형적 사유 구조를 드러내지만, 그것을 구체적 이야기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생성시킨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켈트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켈트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켈트 여신 신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켈트 사회의 여성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켈트 여신에 대한 연구는 이견우의 『보편적 신화소로서의 주권여신』이 최초의 논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견우의 연구는 켈트 여신 전반을 다루고 있다. 개별 켈트 여신 연구는 우리의 논문이 국내에서 발표된 거의 최초의 논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 여신들과 관련된 중요한 내러티브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켈트 신화 내러티브 전반은 몇 권의 번역서를 통해 소개되어 있으나, 개별 여신들에게 대한 내러티브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내러티브를 소개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개별 여신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연구 대상을 중요한 몇몇 아일랜드 여신들로 한정했다(웨일즈 여신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켈트 여신들이 다른 문명권 신화(특히 그리스 그리스·로마 신화)의 여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켈트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켈트족은 중앙아시아 대평원에서 출발하여, 청동기시대에 독일 남동부, 라인강·엘베강·도나우강 유역에서 거주하다가 BC 10~BC 8세기 무렵부터 이동을 시작하여 BC 6~BC 4세기 무렵 갈리아와·브리타니아에 진출했던 인도유럽어족 일파이다.

켈트족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종족이었지만 특이하게도 전혀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특징은 켈트족의 종교인 드루이드교가 가진 특이한 문자관에서 연유한 것처럼 보인다. “켈트인들은 문자를 불신했으며, 드루이드들은 전통과 관계된 모든 것을 문자로 옮기지 못하게 했다.”²⁾ 켈트족은 쓰여진 기록으로는 신성함을 온전히 복원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 같다. 시저의 『갈리아 전기』에 따르면, 드루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20 여 년에 걸친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드루이드 후보자는 종족의 모든 신화, 역사, 문학은 물론, 왕들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종족의 지식 전부를 외워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육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켈트족은 오감Ogham語라고 하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세속적 용도로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³⁾. 따라서 켈트족에 대한 현존하는 기록은 모두 그리스·로마 작가들이 남긴 기록들이다. 그 기록들은 그리스·로마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던 이 인접 부족을 폄하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들의 기록에 나타난 켈트족은 대체로 궤에 굶주린 야만인의 모습이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켈트족은 호전적인 야만인이라는 오해의 굴레를 쓰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비교 문헌학적 연구와,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하여, 고전 작가들의 켈트족에 대한 묘사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점차로 밝혀졌고, 켈트족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로마인들보다도 현대적 개념에 더욱 가까운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아주 큰 틀에서 살펴보면, 현대 유럽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문명은 몇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

2) Jean Markale, *L'Épopée celtique de l'Irlande*, Payot, Paris, 1993, p.13.

3) cf. Thierry Jolif, *Tradition celtique*, Pardès, Puisseaux, 2001, p.51. “사실 오감어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주술적인 것으로서 다른 맥락에서는 전혀 무용하다.”

명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다. 두 문명은 공히 합리성과(기독교의 영성주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명의 세속적 체제는 분명히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부장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켈트족은 꿈꾸는 민족이었으며, 현실보다는 초현실을 중시했고⁴⁾, 여성을 귀하게 여겼다.

켈트족은 모든 인도유럽어족처럼 가부장 사회였으나, 여성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다. 켈트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2.1. 법 체계

켈트 사회의 바탕은 광의의 가족이었는데, 그것은 아일랜드에서는 피네fine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fine는 4대가 되면 완전해져서, 데이르브-피네deirbh-fine라고 불렸고, 그 이후에는 분가하여 별도의 가족을 이루게 된다. 가장은 켄-피네cenn-fine라고 불렸다. 투아하tuath(부족, 종족) 안에는 여러 개의 피네가 포함되어 있다.

땅은 개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 소유 개념⁵⁾이었으며, 재산의

4) 18세기 말, 낭만주의적 분위기가 유럽을 뒤덮었을 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맥퍼슨 Mac Pherson이라는 시인은 켈트 전설 속의 핑갈(핀)의 아들 오시안(오이신=새끼 사슴)이 쓴 시들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들을 발표해서 당대의 유럽 지식인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괴테도 극찬을 했고, 나폴레옹도 그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한다. 결국, 이 시들은 켈트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맥퍼슨 자신이 쓴 위작(僞作)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일화는 켈트적인 것이 고전주의의 형식주의에 숨막혀 있던 당대의 예술적 필요에 얼만큼 부응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대에, 프랑스의 지성 디드로는 시인들에게 숲의 어둠 속에서 영감을 구해야 하며, “무엇인가 거대하고 야만적인 것”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는 켈트신화 안에서 그 완벽한 답을 찾았던 셈이다.

5) 왕 또는 종족의 대표가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특별한 개인에게 임차해 주는 방식. 따라서 영주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특권적인 임차인이었다.

근본 바탕을 이루는 것은 가축떼의 숫자였다. 여성들도 가축떼를 소유할 수 있었다. 토지 소유에 근간을 둔 사회에서는 여성이 개인적으로 재산 소유를 했다는 증언이 나타나지 않는다.⁶⁾

웨일즈에서 아일랜드의 켄-피네는 티에른tiern으로 불렸는데, 이 티에른들 중의 티에른을 마흐티에른machiern이라고 불렀다. 이는 서구 사회의 백작과 흡사한 지위였는데, 여성 마흐티에른도 있었다.⁷⁾

2.2. 결혼

켈트 사회에서 배우자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신화에서 나타나며, 그리스·로마 작가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혼할 때, 부부는 각각 자신의 몫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는 남편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과,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가져간다.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이혼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이루어졌다. 장 마르칼에 따르면, 그것은 켈트족의 결혼이 지닌 독특한 성격 때문이었다.

켈트족의 결혼은 약정조항에 종속되어 있는 계약일 뿐이다. (...) 결혼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계약적인 비종교적 행동이며, 배우자들의 자유에 근거를 둔 행동이다. 켈트적 결혼은 법의 보호를 받는 자유로운 결합이었다.⁸⁾

6) *ibid.*, p.47.

7) *ibid.*, p.48.

8) *ibid.*, pp.50~51. 이후 강조 : 인용자.

켈트족의 이혼은 “아내 버리기”가 아니었다. 서구사회에서 이혼은 언제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켈트 사회에서는 전혀 달랐다. 남편이 아내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혼하고 새로 결혼할 경우, 코이브헤(coibche⁹⁾와 ‘명예의 값’¹⁰⁾은 아내의 차지가 된다. 남편이 옛 아내와 재회하고 싶어도 다시 코이브헤를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현대의 위자료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고대사회로서는 매우 드문 기혼여성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은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었다.

2.3. 家長

남편은 가족의 우두머리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부부의 우두머리는 아니었다. 아일랜드 법은 세 가지 결혼 상황을 명시한다. 가정 안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경우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¹¹⁾

1) 아내가 남편과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계급 출신일 때 부부는 완전히 평등하다. 아내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유리한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이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에만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모든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아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낮을 때, 특히 그녀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보다 적을 때는 아내의 권리가 현저하게 축소된다.

3) 아내의 재산이 남편보다 많을 때에는 아내가 가장이 된다. 이 경우, 남편의 권위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fer fognama*(봉사하는 남성 *homme de service*), 또는 *fer for ban thincur*(여성의 권력 하에 있는 남

9)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돈.

10) 처녀성에 대한 대가로 남편이 지불하는 돈.

11) *op.cit.*, pp.53~55.

shomme sous puissance de femme)라고 불렀다.

이러한 제도는 원시 모가장계의 기억으로서, 아일랜드와 웨일즈 문학 안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에 따라 지어진다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일 수 있다. 많은 켈트 신화 자료 안에서, 영웅들의 아버지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데 반해서, 어머니의 존재는 매우 분명하게 거론되며, 영웅의 우월성의 근원은 어머니로부터 유래한다. 코나이레Conchobar 왕은 “네스Ness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그위디온Gwyddyon과 아리안로드Arianrod는 “돈Don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린다. 이 모계혈통은 기독교화한 켈트신화인 아더왕 전설군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아더왕의 후계자인 가웨인Gawain은 아더왕의 외조카이며, 아주 많은 경우, 영웅들은 모계혈통에 의해 그 우월성을 보장받는다.

2.4.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은 미혼 기혼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직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켈트 사회의 최고위직이었던 드루이드 직에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로마 기록은 여성들이 여마법사와 여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¹²⁾. 여성에게 종교적 역할을 맡기는 관습은 기독교 시대까지도 이어져, 매우 독특한 켈트 기독교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성들이 미사를 집전했다는 증언조차 기록으로 남아 있다. 엄격한 로마의 교회법을 따르는 대륙 주교들의 비난이 빚발쳤음은 물론이다.¹³⁾

12) Jean-Louis Brunaux, *Les Druides*, Seuil, Paris, 2000, p.344.

13) Jean Markale, op.cit., p.55.

켈트 여성은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남성은 여전사들을 찾아가 무술에 입문해야 했다. 전사의 최종적인 무술 교육이 남성 사부들이 아니라, 여성 사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이 신비한 여성들은 여마법사이며 동시에 아마조네스 같은 존재들로서 젊은 남성에게 마법과 무술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전사·여마법사들이 젊은 전사들의 성적 입문initiation sexuelle까지 담당했다는 점이다. 많은 신화에서 그녀들은 전사 후보자의 여사부이면서 동시에 연인으로 등장한다. 전사 후보자의 어머니 나이 빨린 이 여성들은 젊은 남성에게 무술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성교육을 함께 시키는데, 매우 고대적인 어떤 관습의 흔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제도는 성적 흥분을 전사적 용기에 수반되는 무술적 흥분과 동일시했던 데서 유래한 듯하다¹⁴⁾. 성의 발견을 죄의 탄생과 동일시했던 기독교 문명과 전혀 다르게¹⁵⁾, 켈트 문명은 섹슈얼리티 안에서 오히려 주체의 매우 자유롭고 탁월한 발현의 가능성을 보아 내었던 것 같다. 성의 발견과 지식의 발견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짝지어져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우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켈트 여성들의 지위가 서구사

14) 아일랜드 최고의 영웅인 쿠홀린Cuchulinn은 무사적 트랜스 상태에 빠지면,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에너지를 아일랜드 왕궁인 타라의 여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똥땅 별거벗고 그의 앞에 나타나 가라앉혔다고 한다. 이 일화는 성적 에너지와 무술적 에너지의 연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5)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한, 이 관점은 성에 대해서 기독교 문명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가졌던 그리스 문명에서조차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원래 아름다운 여신이었던 메두사가 가장 흉측한 괴물이 된 것은 아테나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회의 여성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녀들은 기혼·미혼을 막론하고, 서구 여성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로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신화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제 켈트 신화에 나타나는 여신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켈트 여신의 성격과 상징적 의미

3.1. 주권여신Déesse de la souveraineté — 왕권의 담지자

켈트사회를 서구사회와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에 관한 관점이었다. 여성에 대한 켈트적 관점은 <주권여신>이라는 신화적 주제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권여신>이란 왕권의 담지자인 여신을 의미한다. 왕권을 생성시키는 것은 남성인 왕이 아니라, 대지의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신이다. 남성인 왕은 단지 여신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의 행사자일 뿐이다.

르 루Le Roux와 귀온바르크Guyonvarc'h는 주권여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신은 그 자체가 주권이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주권은 왕국의 반영을 보장하는 풍요에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16)

여신과 결합하지 않으면, 왕권은 수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권력을 생성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복의 서』에서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도착한 존재는 노아의 아들 중

16) F. Le Roux, Ch-J. Guyonvarc'h, La Souveraineté guerrière de l'Irlande, p.7.

하나인 비스Bith¹⁷⁾와 그의 딸 케사르Cessair 일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대목에서는 반바Banba라는 여성이 최초의 상륙자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대목에서는 스페인 어부 세 사람이 처음으로 도착했다고도 쓰여 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케사르 일행에 대한 이야기만이 쓰여있을 뿐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이 신화의 원전이 여러 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점은 “아일랜드를 찾은 이들 모두가 여성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점”¹⁸⁾이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일행의 성비(性比)에서도 여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견우에 따르면, 케사르 일행의 남성 지도자인 비스는 신화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며, 단지 기독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끼워넣어진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켈트족이 여성을 집단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화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켈트 종족의 여성 기원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투아하 데 다난Tuath de Danan의 존재이다. 투아하 데 다난은 현재의 게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밀Mile의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기 직전에 아일랜드를 정복한 종족으로서 “다누 여신의 종족”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그 신적 성격과 아름다움, 큰 키 등으로 인해 다른 종족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神族이다. 이들은 밀의 사람들에게 쫓겨 지하로 숨어 버리지만, 계속해서 살아남아 아일랜드 신화에 출몰하며,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크기는 작아졌지만, 현대에도 “요정”의 모습으로 민담 안에 살아남아 있다. 서혜숙은 켈트 요정의 기원에

17) 아일랜드 신화는 기독교 수사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장치들을 배치한다. 그것은 분명히 이교적 색채를 지우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문헌신화들은 웨일즈 문헌 신화에 비해 보면, 기독교의 눈치를 훨씬 덜 보고 있고, 훨씬 더 래디컬한 켈트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다.

18) 이견우, 『보편적 신화소로서의 주권여신』, 『인문논총』 49집, 서울대학교, 2003, 274쪽.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몰락한 투아하 데 다난이 요정의 기원이라는 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¹⁹⁾

밀의 사람들은 투아하 데 다난과 싸워 아일랜드 땅을 차지하지만, 그 정복의 과정은 다난 족의 “패배”가 아니라, “양도”처럼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양도 과정은 여신들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밀의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차지하기 위하여, 반바Banba, 포틀라Potla, 에리우Eriu 세 여신²⁰⁾과 협상을 벌인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일랜드의 이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 이름들 중에서 에리우라는 이름은 지금도 “아일랜드”라는 이름 안에 남아 있다. 아일랜드는 “에리우의 땅”이라는 뜻이다. 밀의 사람들은 전사적 우월함이 아니라, 여신들을 맞아들이는 선택 덕분에 에리우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여성 기원설은 땅의 주인은 여성이며, 신격화한 여성인 여신이 궁극적인 주권의 담지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신화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여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탁월한 존재도 왕이 될 수 없다. 왕은 여신의 간택에 의해서만 왕이 될 수 있으며, 여신과 동침함으로써만 그녀의 권력을 전유한다²¹⁾.

여신에 의한 왕의 간택이라는 주제는 “운명의 돌”이라고 하는 리아 팔 Lia Fal의 이미지로 시적으로 표현된다. 리아 팔은 투아하 데 다난이 세

19) 서혜숙, 『아일랜드 요정 이야기』,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94쪽.

20) 이 세 여신은 켈트 신화 안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여신의 트리아드이다. 이 트리아드는 삼위일체인 트리니티와는 달리, 각기 다른 세 명의 존재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이질적 동일성의 개념으로서, 원시 여성 신화에 종종 등장한다. 로버트 그레이브스 Robert Graves는 달의 세 국면이 이 여성적 트리아드의 원형을 나타낸다고 본다(신월(흰색)/보름달(붉은색)/그믐(검은색)). cf. *Les Mythes celtiques*, Ed. Rocher, 2000, p.77.

21) 이 관점에서 이해하면, 앞서 이야기한 전사의 성적 이니시에이션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여신의 대리인인 여전사와의 결합에 의해서만 진정한 무사의 자질을 획득한다.

계의 북쪽에 있는 섬들 중 하나인 팔리아스Falias에서 가져왔다는 4대 보물 중의 하나인데,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 돌 위를 지나가면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 알려준다²²⁾고 한다. 달리 말하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다.

리아 팔은 때로 성적인 상징성을 수반하고 이야기되어지지만, 대지를 주관하는 여신이 왕권의 궁극적 담지자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더를 왕으로 만들어 준 엑스칼리버는 아더가 뽑아낸 것이 아니라, 엑스칼리버가 꽂혀있던 바위, 즉 대지여신이 내어준 것이다²³⁾. 따라서 아더는 최후의 캄란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던져 버림으로써 왕권의 근원으로 돌려보낸다(대지 여신은 종종 물의 여신이기도 하다). 여신의 신비한 팔이 나와 엑스칼리버를 거두어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더가 단지 엑스칼리버를 소유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권여신인 귀네비어와 결혼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이 소리치는 돌은 켈트신화의 기독교적 변용인 아더왕 신화와 성배전설에서 원탁의 13번째 의자(“위험한 자리”)로 바뀐다. 그 자리에는 장차 성배를 획득할 순결한 기사만이 앉을 수 있는데, 무자격자가 앉으면, 돌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그 무자격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리아 팔의 이교적 기억을 악마화한 것.

23) 이 점에 관해서, 주몽신화에서 유화부인의 존재는 매우 흥미롭다. 그녀는 결혼도 안하고 남성(해모수)과 관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백에게 버림을 받는데, 버림을 받을 때 입을 석자를 뿔쳐 새주몽이가 된다. 하백은 그녀를 우발수에 빠뜨리는데, 물속에서 살다가 금와왕이 던진 철그물에 “바위 위에 앉은” 채 붙잡힌다. 새는 전세계적으로 여신의 상징적 동물이다(나중에 그녀는 다시 새의 모습으로 주몽에게 곡식을 전해준다). 바위에 앉은 유화부인은 대지모신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주몽의 왕권은 유화부인과의 관계에 의해 확보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중에 해모수를 제치고 주몽과 유화부인만이 부여의 신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선화공주의 조언에 따라 땅에서 금을 파내어 왕이 되었던 서동의 신화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서동은 뛰어난 기지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땅-대지-금으로 상징되는 주권여신인 선화공주와의 결합에 의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권여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신화적 이야기는 무수하게 많다. 그러나 우리는 『브리크리우의 잔치』라는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주권여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9세기경에 문자화된 것으로, 주권여신의 주제 자체를 신화기록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독의 헛바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얼스터인 브리크리우Bricriu²⁴⁾가 코나이레 왕과 얼스터Ulster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했다. 그러나 얼스터인들은 내키지 않았다. 브리크리우가 말썽을 불러일으키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브리크리우는 화가 나서 게이스geis²⁵⁾로 협박했다. 그래서 얼스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연회에 가기로 했다.

브리크리우는 영웅 퇴카러Laegaire를 찾아가서, 연회 도중에 “영웅의 고깃조각²⁶⁾”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브리크리우는 코날 커나흐 Conall Cernach에게도 쿠홀린Cuchulainn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연회가 열리자, 퇴카러의 마차꾼이 일어나서 자기 주인을 위해 영웅의 고깃조각을 요구했고, 큰 소란이 벌어졌다. 드루이드 센차Sencha가 영웅의 고깃조각은 손님들이 나누어 먹고, **코노트Connaught의 왕 아일릴에게 가서 세 영웅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지 물어보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 사이에 브리크리우는 퇴카러의 아내 페델름Fedelm을 만나, **그녀에게 연회장에 제일 먼저 입장하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얼스터의 최고 영웅의 아내이므로 다른 부인들은 마땅히 그녀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코날의 아내 렌다베어Lendabair와 쿠홀린의 아내 에머Emer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음은 물론이다.

24) 독살가이며 말썽장자로, 트릭스터의 역할 담당. 게르만 신화의 로키나 아더왕 사이의 클의 케이Kai와 같은 성격을 지닌 신화적 인물.

25) 게이스는 일종의 마법적 금기. 게이스가 말해지면,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26) 가장 뛰어난 영웅이 차지할 수 있는 고기. 영웅의 우위를 상징한다.

여자들 사이에 난리법석이 일어났다. 그래서 쿠홀린, 코날, 뢰카러는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들은 이상한 거인과 싸워야 했다. 코날과 뢰카러는 패배하여 에마인 마하로 돌아왔지만, 쿠홀린은 거인의 수레와 무기들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브리크리우가 영웅의 고깃조각은 쿠홀린의 차지라고 되었고 소리쳤다. 엘스터인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러나 코날과 뢰카러는 그 판결을 거부하며 **아일릴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엘스터인들은 아일릴과 메브가 살고 있는 크루아한을 향해 갔다. 코나이레가 자신들의 방문 목적을 알렸다. 다음날, **메브는 영웅들을 따로따로 불러 잔을 하나씩 주었는데**, 뢰카러에게는 청동잔을, 코날에게는 놋쇠잔을, 쿠홀린에게는 금잔을 주었다. 그리고는 에마인 마하에 돌아가기 전에는 그 잔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사메라Samera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그들을 **“골짜기의 요정들”**에게 보낸다. 세 사람 모두 요정들에게 얻어맞는다. 그러자 쿠홀린의 마차꾼 뢰크Loeg가 쿠홀린을 비난한다. “비겁하고 불쌍하구나! **요정들이 당신을 그렇게 불쌍한 지경에 빠뜨리다니 대체 당신의 무공과 용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전사의 분노가 쿠홀린을 사로잡았고, 쿠홀린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메라는 쿠홀린이 영웅의 고깃조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다. 세 동료는 에르코일Ercoil네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일대일 결투를 제안했다. 뢰카러와 코날은 도망쳤지만, 쿠홀린은 에르코일과 싸워 이겼다. **그런데 사메라의 누이인 부안Buán이 쿠홀린에게 반해서 그의 전차를 따라가다가 무섭게 쾅쾅 뛰어서 전차의 뒷쪽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러나 이마를 바위에 부딪쳐 죽고 말았다.**

에마인 마하에 도착한 세 명의 전사는 회합에 가서, 잔을 꺼내어 보였다. 물론, 쿠홀린이 승자로 선언되었지만, 이번에도 뢰카러와 코날은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센차는 마법의 힘을 소유한 거인 **우아트 막 이모나인Uath Mac Immonainn(“큰 두려움Grande Crainte의 아들”)**의 판결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우아트는 영웅들에게 자신의 도끼로 자기 머리를 자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는 그가 자신의 목을 자른 영웅의 목을 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뢰카러와 코날은 그 불길한 제안을 거절했지만, 쿠홀린은 도끼를 집어들고 거인의 목을 잘랐다. 목이 잘린 우아트가 일어나서 한손으로

머리를 집어들더니, 가슴에 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끼를 집어들고, 호수 안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 날, 쿠홀린은 돌아와 우아트 앞에 놓인 바위 위에 자기 머리를 올려놓았다. 거인은 도끼를 세 번 휘둘렀지만, 쿠홀린의 머리를 자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쿠홀린이 영웅의 고깃조각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코날과 퇴카러는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얼스터인들은 그들을 죽음의 신인 쿠로이 막 다이레Cúroi Mac Dairé에게 보냈다. 그들이 쿠로이의 성채에 도착하자, **쿠로이는 없고 그의 아내 블라트나이트Blathnait가 맞이주었다.** 그녀는 밤새 보초를 서라고 요구했다. 첫날 밤과 두 번째 날 밤에 유령이 나타나 퇴카러와 코날을 두엄더미에 처박아 버렸다. 세 번째 날 밤에는 쿠홀린이 보초를 썼는데, 유령이 나타나자 전사의 분노 속으로 들어간다. 유령은 짹짹 빌며 쿠홀린에게 영웅의 고깃조각을 약속하고, **어머에게는 아일랜드 여인들에 대한 우위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유령이 사실은 쿠로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쿠로이는 쿠홀린이 영웅의 고깃조각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에마인 마하에서 얼스터인들이 쿠로이의 판결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코날과 퇴카러는 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의 고깃조각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필사본 안에서 미완성. 그리고 틀림없이 나중에 덧붙인 것), “**영웅의 고깃조각은 에마인 마하에서의 전사의 우위가 획득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얼스터인들이 모여 있을 때, <촌놈Rustaud>(켈트 문학에 아주 종종 나타나는 일종의 숲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얼스터의 모든 전사들에 대한 우위를 쿠홀린에게 줄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필사본이 거기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코날과 퇴카러가 드디어 쿠홀린의 우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²⁷⁾

27) Jean Markale, *L'Épopée celtique de l'Irlande*, op.cit., pp.130~134, 인용자가 요약함.

영웅의 고깃조각을 놓고 싸우는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장면은 BC 2~1세기의 그리스의 스토아학과 철학자 포세이도니오스의 켈트족에 관한 증언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²⁸⁾ 그런데, 그의 증언은 이미 그 관습이 오래 전에 사라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고대적 성격은 분명하다.

이야기의 주제는 영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인데, 흥미롭게도 영웅의 우위가 여성들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웅의 우위에 따라 아내의 우위가 결정되며, 또한 영웅의 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다. <주권 여신>의 주제가 이야기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면,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아내의 우위라는 주제가 그 위에 덧칠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상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권 여신>의 주제는 매우 뚜렷하다.

싸움이 벌어지자, 판관 역할을 하는 드루이드는 “아일릴 왕에게” 판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러나, 정작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일릴 왕이 아니라, 메브 왕비(여왕)이다. 다시 판결은 여성들인 “골짜기의 요정들”에게 맡겨진다. 마지막 판결을 맡은 것은 쿠로이라고되어 있지만, 결국 영웅의 우위를 확인시켜 주는 군사적 행동을 끌어낸 것은 부재 중인 쿠로이 아니라, 성을 지키고 있던 그의 아내인 블라트나이트이다. <머리 자르기> 시련을 부과하는 우아트는 남성이지만, 그의 큰 덩치로 보아서,

28) 포세이도니오스의 증언은 켈트에 대한 그리스·로마 작가들의 증언 중에서 가장 신빙성있는 증언으로 꼽힌다. 그는 갈리아 지방으로 직접 여행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작은 전하지 않지만, 많은 기록 안에 인용문의 형태로 전한다. 켈트에 관한 많은 그리스·로마 작가들의 기록은 그의 증언을 편의대로 짜깁기하거나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장 루이 브뤼노Jean-Louis Brunaux는 꼼꼼한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켈트족에 관한 한 가장 권위있는 기록으로 여겨져 왔던 시저의 기록조차, 포세이도니오스의 증언을 편의대로 편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cf. Jean-Louis Brunaux, *Les Druides*, Seuil, Paris, 2006.

그가 가부장제 이전의 매우 고대적인 인물²⁹⁾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 우리는 중간에 별 관련성 없이 끼어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안이라는 여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녀의 일화는 왜 끼어들어간 것일까?

부안은 보안Boann이라는 이름의 변형으로 보이는데, 보안은 Bo Vinda (=훤 암소)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여신의 이름이다. 그녀는 보인강을 의인화한 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쿠홀린에게 반해서 쿠홀린을 쫓아가다가 마차에 부딪쳐 죽은 이 여성의 신화적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그녀는 쿠홀린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주권여신이다. 그녀가 쿠홀린과의 결합을 피하다가³⁰⁾ 마차에 부딪쳐 죽는 것은, 주권여신의 존재가 이미 이해불가능한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와 쿠홀린의 거리는 신화적인 변질의 거리이다.

영웅들이 쿠홀린의 명백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권여신의 신화적 주제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과 결합하지 않는 한, 진정한 영웅의 우위는 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는 계속 같은 주제 주위를 맴돌면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난다.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며 늘어지는 이유는 이 이야기의 신화적 주제가 이미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마인 마하에서의 전사의 우위가 획득될 때까지” 영웅의 우위

29) 거인들은 켈트인들이 도착하기 전의 유럽 선주민 문화인 거석문화를 환기시킨다. 거석문화는 켈트 문화에 매우 흥미로운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 거석문화 안에서 여신이 가지고 있는 우위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석 유적들은 매우 특이하게도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석 조각 모티프들은 여신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cf. Ch.T. Le Roux, *Carnac, Locmariaquer et Gavrinis*, Ed. Ouest-France, Rennes, 2009, p.20.

30) 우리가 길이 문제로 생각한 부분에는 쿠홀린이 마차를 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목의 성적 의미는 분명하다.

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었다는 마지막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에마인 마하는 얼스터의 수도의 이름으로 “마하 여신의 쌍둥이”라는 뜻이다(우리는 다음 장에서 마하 여신을 다룰 것이다). 즉, 영웅이 마하 여신으로부터 정식으로 주권을 이양받기 전까지는 영웅의 우위는 판단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 아일랜드 여신들—다누, 마하, 메브

켈트 문헌 신화의 자료는 크게 아일랜드 자료와 웨일즈 자료로 나뉜다. 거칠게 말하면, 아일랜드 자료들은 문자정착 시대보다 훨씬더 고대적이며 원시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고, 기독교의 억압을 덜 드러내고 있는 반면, 웨일즈 자료들은 훨씬더 문자 정착 당시의 당대적 색깔을 보이고, 기독교의 억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3.2.1. 다누Danu—신들의 어머니

다누 여신은 아일랜드의 신족인 투아하 데 다난Tuath De Danan의 어머니이다. 이 여신은 풍요와 대지의 여신인데, 오늘날에도 ‘아누의 젖꼭지’(먼스터 지방 킬라니Kilarny에 나란히 서있는 두 산 봉우리)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현대 지명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다나, 다누, 아누, 등으로 불리는 이 여신은 신화 안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누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명시되며, 켈트 전통뿐 아니라, 인도유럽어 전통, 극동의 셈어 전통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 중요한 여신이다.

장 마르칼은 다나, 또는 다누라고 불리는 여신의 인도유럽 근원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 신화의 디아나Diana라는 이름은 Di와 Ana(안나 여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름에서 Ana는 위대한 여신의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한다.³¹⁾

마르칼에 따르면, 안나라는 이름은 로마의 Anna Parenna(“베풀어주시는 어머니” “음식의 공급자인 어머니”), 인도의 Anna Purna(Anna Parenna와 같은 뜻), 그리스의 Diana, Danae, 메소포타미아의 Anahita, 페니키아의 Tanit 또는 Tanait, 아일랜드의 Dana(Danu),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성녀 Anna 등에 포함되어 있다. 성서에는 아무 근거도 없지만, 기독교 민간신앙에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 여기는 성녀 안나Ste. Anne는 켈트 전통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특히 섬김의 대상이 된다(성녀 안나는 14세기에 이르러서야 로마에 의해 공식화된다).

안 브레킬리엔Yann Brékilien은 브르타뉴의 마마 고즈mama-goz(“할머니”, 축자적 의미는 “늙은 어머니”) 신앙이 성녀 안나 숭배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한다.³²⁾ 성녀 안나에게 바쳐진 성당들은 아주 종종 켈트 여신의 사당 위에 세워지는데, 이를 둘러싼 흥미로운 전설들이 많이 전한다. 오레이의 성녀 안나Ste. Anne d’Auray 바실리카는 아주 옛날부터 Ker-Anna라고 불렸다. Ker 또는 Kaer, Caer는 집, 성, 또는 市라는 뜻이다. 브르타뉴 지방에는 아직도 Ker로 시작되는 지명이 늘비하다.

시인 샤를르 르 캥트렉Charles Le Quintrec은 자기 자신을 성녀 안나의 자손으로 인식한다 :

안느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다. **우리는 그녀의 혈통 한가운데**

31) Jean Markale, *Les Dames du Graal*, Pygmalion, Paris, 1999.

cf. 다케루베 노부야키는 Danu는 신을 의미하는 Da에 어머니를 의미하는 Anu가 결합된 것으로 <어머니신>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박수정 옮김, 『켈트 복구의 신들』, 들녘, 2000, 52쪽.

32) Yann Brékilien, *Mythologie celtique*, Ed. du Rocher, 2000, p.84.

에 있다. (…) **안느는 우리의 피로,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곤고함으로, 따라서, 곧 우리의 기도와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³³⁾

찰스 스콰이어는 다누 여신의 이름이 얼스터의 가장 강력한 요정인 어냐Aynia와 남먼스터의 아너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너는 먼스터에서 변영과 풍요의 여신이다. 매년 성요한제 전야에는 다 음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그녀를 달래는 마법의 제의를 치렀다. 건조 다발이나 밀짚으로 싼 막대기에 불을 붙여서 경작물과 가축들 위로 휘두 르며 그녀의 크룩크 아너 성을 돌아 언덕 꼭대기를 향해 간다. 이 여신은 대개 친절했다고 한다. **아일랜드 명문가 열 두 가문 중에서 절반이 그녀가 자신들의 여시조라고 주장한다.**³⁴⁾

3.2.2. 마하Macha-암말 여신

마하 여신은 아일랜드 신화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과 의미는 분명하다. 그녀는 얼스터의 수도인 에마인 마하에 그 이름을 준 여신이다. 마하의 이야기는 풍요와 대지의 여신의 주권 담지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무렵의 변화를 미묘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스터에 크루니옥Crunniuc이라는 농부가 살았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아름답고 품위 있는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밤이 되자 크루니옥의 옆에 와서 누웠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살림살이가 펴기 시작해 크루니옥은 부자가 되었다.**

33) *ibid.*, p.85.

34) 찰스 스콰이어, *op.cit.*, 227쪽.

여자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분만일이 가까워졌을 때, 매년 열리는 얼스티인들의 모임이 열렸다. 마하는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크루니옥만 회합에 가기로 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녀는 크루니옥에게 그녀에 대해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두었다.

모임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달리기, 격투, 장대던지기, 경마와 열병식이 열렸다. 마지막 날, 왕이 준마가 끄는 말을 타고 나타나 경마에서 우승했다. 왕이 흡족한 표정으로 자신의 말보다 더 빨리 달릴 말이나 사람은 없다고 말하자, 크루니옥은 참지 못하고 “우리 마누라가 더 잘 달리는 데…”라고 말해 버렸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크루니옥을 체포했다. 그리고는 그의 말을 증명하기 전에는 풀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왕의 전령들이 크루니옥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아내에게 남편의 말을 증명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게 된다고 말했다. 여자는 곧 해산할 몸이므로 말미를 달라고 애원했다. 전령들은 강제로 그녀를 왕 앞으로 끌고 갔다. 여자는 왕에게 말미를 구했다. 그러나 왕은 거절했다. 그러자 여자가 항의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왕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해산하는 여자에게는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되며, 노동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군중을 향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여자는 그들을 저주했다.

“나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지 않은 여러분에게 수치가 있기를!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요. 저는 남편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벌로서,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대양의 아들인 기이한 자Etrange의 딸 마하**라는 것을 밝힌다. 그녀는 왕의 말들과 함께 경주했고, 승리했다. 그러나 결승점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후 그 지역은 에마인 마하(“마하의 쌍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기를 낳는 순간,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은 모든 남자들이 마법에 걸렸다. **그후 얼스티인들은 모두 매년 5일 밤낮을 여자처럼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 영웅 쿠홀린 단 한 사람만이 마하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³⁵⁾

우리나라에서도 풍요를 가져다주는 요정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는 흔하게 발견된다. 우렁각시로 대표되는 이 초자연적 존재가 원래는 풍요와 대지의 여신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녀의 신적 근원은 그녀가 “그녀의 실체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결혼생활에 응한다는 신화적 설정으로 분명해진다. 우렁각시들의 정체를 남편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녀는 <괴물>, 즉 인간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인지할 수 없는 성스러운 他者의 영역으로 귀환해 버린다. 이 주제는 에로스와 프시케의 신화에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³⁶⁾.

마하의 대지모신적 성격은 “평원” 또는 “들판”을 의미하는 그녀의 이름에서 이미 확인된다³⁷⁾. 풍요를 가져다주는 기능과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 등도 대지모신으로서의 마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암말 신이라는 점이다. 켈트사회에서 위대한 여신들은 종종 말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³⁸⁾, 암말이 위대한 여신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켈트의 암말 여신은 에포나Epona라는 이름으로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경을 받았다. 암말 여신으로서의 마하는 죽음의 여신의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은 아주 종종 인도령psychopompe으로 나타난다. 말은 그 빨리 달리는 능력 때문에, 빨리 흘러지나가는 시간,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또한 동시에, 죽음보다 빨리 달리는 죽음에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마하는 분만의 고통을 겪으며, 같은 고통을 남성들에게 부과한다. 죽

35) Yann Brékilien, op.cit., pp.218~220, 인용자 요약 인용.

36) cf. Jean Markale, *Mélusine*, Albin Michel, Paris, 1993, p.10.

37) Thierry Jolif, *Tradition celtique*, Pardès, Puiseaux, 2001, p.80.

38) 현대판 대지모신을 사랑스럽게 그려낸 프랑스 영화 『아멜리』(원작명 : 아멜리 폴랭의 놀라운 운명 *Le Destin fabuleux d'Amélie Poulain*)에서 여주인공의 성(姓) “폴랭”은 “망아지”라는 뜻이다.

음과 유사한 분만의 고통은 일종의 복수의 형태로 부과된다. 즉, 더 이상 주권 담지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는 지위로 몰락한 위대한 여신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모면한 고통을 제의적(마법)으로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³⁹⁾. 그러나 그녀는 분만의 행위로, 그녀 자신이 생명을 재창조하는 자, 죽음-말보다 빨리 달리는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분만의 장소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영속적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장소는 자손 대대로 왕권의 본거지, 왕이 통치하는 장소가 된다. 따라서 마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권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⁴⁰⁾

이처럼 마하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관장하는 여신이다. 이 특징은 켈트 여신들을 그리스-로마 유형의 여신들과 가장 분명하게 나누어주는 것이기도 한데, 인도의 칼리 여신이나, 프리지아의 퀴벨레 여신처럼 생명과 죽음의 기능이 분명하게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로마 유형보다는 그 통합의 정도가 훨씬 높다.

스티븐 엘 해리스와 글로리아 플라츠너는 초기의 위대한 여신은 생명, 죽음, 부활의 세 가지 기능을 주관했으며, 그것이 처녀-어머니-노파의 패턴으로도 반복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초기의 위대한 여신들은 은혜로운 것만이 아니라, 두려운 것들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이 기능들은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들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재정의되어, 각기 개별적인 여신들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분석한다.⁴¹⁾ 그런데, 켈트 여신들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관장하며,⁴²⁾ 아름다운 젊은 여자이며 동시에 늙은 노파

39) 마하는 전쟁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cf. Thierry Jolif, op.cit., p.111.

40) 그녀의 이름은 아일랜드 최고 영웅 쿠홀린의 애마의 이름 “마하의 잿빛 말Gris de Macha”에도 남아 있다.

41) cf. 스티븐 엘 해리스, 글로리아 플라츠너, 이영순 옮김, 『신화의 미로찾기1』, 202~207쪽.

42) 아일랜드의 모리간을 계승하고 있는 아더왕의 사악한 누이 요정 모르간은 그토록 아더왕을 괴롭히고 죽이고 싶어하다가, 정작 왕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를 치유하기

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경우는 전쟁 여신인 모리간Morrigan (모리구Morigu)이다. 그녀는 게르만 신화의 발키리들처럼 전장에 나타나 병사들의 머리 위를 질주한다. “이 여신은 완전무장을 하고 두 개의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녀의 함성은 만 명의 고탈소리만큼 컸으며, 전쟁이 나는 곳마다 자신의 모습으로 또는 까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 용사를 부추긴다.”⁴³⁾ 그녀는 혼자서 아일랜드 연합군과 대적하고 있는 쿠홀린의 용맹함에 반해서 아름다운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구애를 하게 되는데, 쿠홀린이 냉담하게 거절하자, 여러 가지 형체를 하고 나타나 방해하겠다고 말한다. 그가 결투하는 동안 모리구는 어린 암소, 뱀장어, 암늑대 모습으로 나타나 방해한 뒤, 마지막에는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에게 우유를 주고, 그의 축복을 받아 쿠홀린과의 결투에서 생긴 상처를 치료받는다⁴⁴⁾. 그러나 우리는 ‘우유’의 상징적 연계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행한 것은 쿠홀린이 아니라 모리구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이야기에서 주권여신으로서의 마하의 면모는 더욱 분명하게 제시된다. 그녀는 그 이야기에서 사슴신인 네메드Nemed의 아내이며, 몽루아드Mong ruad(“붉은 갈기를 가진”)라는 별명을 가진 호전적인 아일랜드 여왕이다. 그녀의 아버지 아에드 루아드Aed Ruad는 그녀가 다른 두 남성과 함께 7년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다. 그가 죽자, 마하는 자신에게 할당된 재위기간을 요구했으나, 두 명의 남성들은 여성이 국가의 수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여 왕위를 차지했다.⁴⁵⁾

위해서 아발론섬으로 실어간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화적 콘텍스트 안에서는 전혀 모순이 아니다. 그녀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관장하는 여신이기에 때문이다.

43) 찰스 스콰이어, *op.cit.*, p.62.

44) cf. *ibid.*, p.159.

45) Yann Brékilien, *op.cit.*, p.218.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세속적 권력투쟁처럼 보이지만, 등장인물들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대, 보다 근원적인 신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별명은 그녀가 암말 여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네메드라는 것도 신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메드는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도착한 조상들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하늘(nem)⁴⁶⁾, 더 정확하게는 하늘의 궁륭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네메드-마하의 짝은 신성결혼의 하늘-대지의 짝이다.

3.2.3. 메브Medb-섹슈얼리티와 영토의 여신

메브는 마이브, 또는 미브라고도 불리며, 엘스터의 라이벌인 코노트의 강력한 여왕이다. 그러나 그녀가 보이는 행동은 여왕이라기보다는 여신의 행동이다. 미란다 제인 그린은 “메브는 에우헤메로스화한 신”으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여신이며, “전쟁 여신들의 그룹과, 섹슈얼리티와 영토의 여신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고 단언한다.⁴⁷⁾ 고대적인 야만성이 물씬 풍기는 『쿨리의 소떼 약탈Tain Bo Cualnge』이라는 서사시에서 그녀는 야심만만한 여왕으로서 남성 전사들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모든 것은 코노트의 수도인 크루아한의 집안 일에서 시작된다. 코노트의 왕 아이릴과 그의 아내인 메브는 두 사람의 재산이 동등한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인지 알기 위해 “베갯머리 싸움”을 시작한다. 이 말다툼에서는 두 사람의 성격도 묘사된다: 아이릴은 거만하지만, 유약하며 도량이 좁다. 반대로 메브는 강하고, 의지가 굳고, 야심만

46) 초기 켈트인들은 건물로 지어진 성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종교의식은 주로 숲속의 빈터에서 치러졌는데, 그곳은 네메톤nemeton이라고 불렸다. 하늘이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열린 장소라는 의미.

47) Miranda Jane Green, *Mythes celtiques*, Points, Paris, p.50.

만하며, 거침이 없고, 자신의 승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⁴⁸⁾

이 대화에서 메브는 자신은 “나는 우아함과 관대함에 있어서 최고이며, 전투와 논쟁에서도 최고”라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왕자들이 자신에게 구혼했지만, 자기가 아일릴을 택한 것은 단지 그가 “관대하고, 용감하며”, 또한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내가 속하게 될 남자가 인색한 남자라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부드러움과 관대함을 가진 남자에게 좋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드러움에 있어서 그보다 낫다면, 그것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훌륭하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조롱거리가 아닐 것이다. 만일 내 남편이 겁쟁이라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또한 별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홀로 전쟁과 결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가 그보다 더 활력이 넘친다면, 그것은 내 남편에게 조롱거리이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활력이 넘친다면, 그것은 조롱거리가 아니다. 내가 속하게 될 남자가 질투한다면, 그것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이 한 남자의 그림자 안에 다른 남자를 두지 않고 그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⁴⁹⁾

그녀는 이에 대놓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는 조금 뒤에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치욕이나 혼란이나 곤란함ennui을 받게 되더라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는 명예의 결과나 댓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48) Jean Markale, *L'Épopée celtique de l'Irlande*, op.cit., p.116.

49) Ch-J. Guyonvarc'h, *Razzia des Vaches de Cooley*, Gallimard, Paris, 1994, p.54.

너는 여자의 재산권으로 결혼한 남자이기 때문이다.⁵⁰⁾

아일릴은 메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헤아려 본다.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부부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구들, 도구들, 그릇들, 보석들, 그러나 특히 가축떼를 헤아려본다. 고대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원시 켈트사회에서 그랬듯이, 진정한 부는 가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일릴이 메브보다 뛰어난 황소 ‘아름다운 흰뺨’을 한 마리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화가 난 메브는 그것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황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스터인 다레Dàré가 ‘쿨리의 갈색 황소’라는 훌륭한 황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전령을 그의 집으로 보낸다. 그런데, 황소 값으로 메브가 제시하는 조건이 매우 흥미롭다.

네 황소를 데리고 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땅과, 여자 노예 일곱 명의 값어치가 있는 전차 한 대에, 덤으로 **메브의 넓적다리의 우정**을 얹어주겠다.

다레는 이 흥미로운 제안에 혹해서 처음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메브가 다레가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빼앗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자존심이 상해서 의사를 번복한다. 그리하여 메브는 아일랜드 연합군을 조직하여 갈색 황소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벌인다. 메브는 얼스터인들이 마하의 마법에 걸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개시하는데, 이 전쟁에서 마법에 걸리지 않은 쿠홀린만이 홀로 대군을 상대하여 눈부신 무공을 펼쳐 보인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메브가 자신의 권력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0) *ibid.*

별인 이 전쟁에 아일릴은 아무 소리 않고 떠나나서고, 아내가 용감한 전사들에게 참전의 대가로 번번이 <넓적다리의 우정>을 제안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다. 속으로는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도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아내의 간통을 감싸는 발언마저 한다.

그녀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원정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녀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수많은 인명을 잃고 나서야 메브는 갈색 황소를 수중에 넣지만, 코노트에 도착한 갈색 황소는 아일릴의 흰 빨과 한판 싸움을 벌여서 상대를 갈갈이 찢어 죽이고, 자기도 언덕에 등이 부딪쳐 죽어 버린다.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허망한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메브의 권력 욕이 빚어낸 무지하고 잔인한 전쟁에 불과한 것일까? 이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원시 문학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메브’라는 이름은 “도취”라는 뜻인데, 많은 연구자들은 그것을 “권력에의 도취”라고 해석하고 있다.⁵¹⁾ 따라서 그녀가 무수히 파트너를 바꾸어대는 것은 그녀가 “왕권의 의인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브레킬리엔은 “한 사람의 소유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정치 권력의 속성이다”라고 덧붙인다. 사실, 메브는 주권여신으로서의 풍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신은 영원하지만, 인간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은 유한하다. 따라서 여신은 계속 파트너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풍요는 보장된다.

이러한 속성은 켈트 여신을 계승하고 있는 아더왕의 왕비 귀네비어에게

51) cf. Yann Brékilien, op.cit., p.255.

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귀네비어는 웨일즈어 권휘바르Gwynhwyvar에서 유래한 이름(현대 영어명에서 제니퍼)인데, “흰 유령”, “흰 환영(幻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⁵²⁾ ‘흰 여신Déesse blanche’은 켈트 민담 도처에 출몰하는 아름다우면서도 기이한 여신이다. “희다”라는 것은 이 신적 존재의 빛남과 아름다움⁵³⁾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녀의 정체성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녀는 아무도 아닌 존재, 누구이기 이전의 존재, 전부 또는 무이다. 귀네비어는 왕권의 담지자인 여신으로서, 그녀와 관계를 맺는 영웅에게 왕권, 또는 사회적 우월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귀네비어 왕비의 란슬롯과의 불륜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 귀네비어는 아더왕 원시 판본에서 아더왕의 부하들 거의 전부와 관계를 맺는다⁵⁴⁾. 그러나 이 여신 출신 왕비의 주권여신으로서의 신화적 특성은 아더왕 신화가 전개된 기독교 문화 하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모든 연인은 란슬롯이라는 신화적으로 뒤늦게 발명된 새로운 연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제 풍요를 보장하기 위한 주권여신의 사랑은 중세기 맥락에서 궁정식 사랑amour courtois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기독교 콘텍스트 안에서도 민중이 신화를 통해 귀네비어를 간통을 저지른 불충한 왕비로 만들면서까지 그녀의 고대적 여신의 면모를 유지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트리스탄과 이졸데 신화의 이졸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쿨리의 소매 약탈』은 다른 해석의

52) Jean Markale, *Les Dames du Graal*, Pygmalion, Paris, 1999, p.76.

53) 많은 켈트어에서 “희다”라는 형용사는 “아름답다” “빛나다”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이 말은 유난히 영웅과 신들의 이름에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일랜드 영웅 핀Finn이다. 핀은 “미남” 또는 “금발머리” “흰 얼굴” 등의 의미를 가진다.

54) Jean Markale, *ibid.*, p.103.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원형이 일종의 우주론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프롤로그 격인 다른 이야기에서, 우리는 명백한 우주론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쿨리...』보다 후대에 기록된 문헌이지만, 담겨있는 내용은 그보다 더 고대적이다.

프리우흐Friuch는 먼스터 시이sidh⁵⁵⁾의 왕 보브Bodb의 돼지치기⁵⁶⁾였다. 루흐트Rucht는 코노트 시이의 왕 오흐네Ochne의 돼지치기였다. 두 사람은 친구였다. 먼스터에 도토리야 모자라면, 루흐트가 프리우흐에게 돼지 떼를 이끌고 코노트로 오라고 초대했다. 그런데 먼스터 사람들과 코노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서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했다. 첫 번째 시험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 먼스터와 코노트의 돼지들이 야위었고, 사람들은 프리우흐와 루흐트에게서 돼지치기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자 2년 간 그들은 까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2년 뒤에는 물고기가 되어 강에서 잔인한 추격전을 벌였다. 다시 2년 뒤에는 언덕만큼 커다란 짐승이 되어 물 위에서 치고 받았다. 불의 겁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그 뒤에는 둘 다 다시 사람이 되어 한 명은 보브를 섬기고, 다른 한 명은 퍼그나Fergna왕을 섬겼다.

어느 날, 보브와 린Rinn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챔피언, 그리고 어마어마한 행렬이 코노트 회의에 도착했다. **보브의 군대는 너무나 부유하고 강해서, 많은 코노트 사람들이 겁에 질려 죽었고, 군대가 떠날 때, 140명의 왕비들이 군대와 함께 도망쳤다. 그때 북쪽으로부터 다른 행렬이 도착했다. 검은 말을 탄 가난뱅이들의 군대였다. 그들은 바다를 말처럼 타고 있는 것같**

55) 투아하 데 다난이 밀의 이들을 피해 숨은 지하의 장소. “평화”라는 뜻으로 “초자연적 존재들의 거주지”를 의미한다. 종종 거석문화의 고인돌이나 선돌들이 그 장소로 지목된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는 <요정의 언덕>이라고 명명된 거대한 고인돌들이 있다.

56) 켈트 신화의 돼지치기는 현대사회의 돼지치기와 전혀 다른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직책으로 풍요와 불멸성을 베풀어주는 투아하 데 다난의 음식인 돼지를 돌본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화에서 트리스탄도 왕의 돼지치기이다.

왔다. 그들은 퍼그나의 군대였다. 모두들 그의 군대의 비참한 꼴을 놀려댔다. 그러나 그의 챔피언 페바르Faebur가 린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싸움은 사흘 간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로 어찌나 같기같이 찢어놓았던지, 그들의 허파가 들여다보일 지경**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떼어놓았다.

다른 모험들이 있던 다음, **두 맞수는 별레가 되었다.** 하나는 코노트의 우아란 가라드Uaran Garad 샘에, 다른 하나는 얼스터의 콜리에 있는 글라스그루인드Glass Gruind에 살았다. 두 번째 별레는 자신의 이름이 크루니옥Crumniuc이라고 밝힌 뒤, **넷가에 씻으러 온 미래의 메브 왕비와 대화**를 나누었다. **별레는 메브에게 코노트의 아일랜드와 결혼하라고 권유**했다. 투묵Tummuc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별레는 피아크나 왕과 우정으로 맺어졌다. 그리하여 메브와 피아크나가 두 마리 별레를 일 년 간 길렀다.

어느 날 투묵이 피아크나에게 말했다 :

내가 작년에 말했던 동물과 내가 곧 만나게 될 거야... 네 암소 하나가 내일 나를 삼킬 거고, 메브의 암소는 내 친구를 삼킬 거야. 그리하여 **두 마리 황소가 태어날텐데, 우리 때문에 아일랜드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⁵⁷⁾

이 이야기의 신성한 근원은 이 맹목적인 싸움을 벌이는 두 맞수가 시이의 존재들이라는 사실로 확인된다. 연속적인 변신을 통해 계속 싸워대는 이 전쟁에는 아무 이유도 없다. 대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원소적인 대치관계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하늘에서 싸우고 물에서 싸우고 땅에서 싸운다. 그리고 사람으로 환생한 두 사람은 <이주 부유한 군대>와 <이주 가난한 군대>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부유함>과 <가난함>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원소적 대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유한 군대는 땅에 속해 있으며, 가난한 존재는 <물>에 속해

57) Jean Markale, *L'Épopée celtique de l'Irlande*, op.cit., pp.39~42, 요약 인용.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화적 장치를 안정적 원소인 <흙>과 불안정한 원소인 <물>의 대치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대립관계는, 시이의 영역을 벗어나, 인간의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관계로 재해석된다. 하나는 아이릴의 황소가 되고, 하나는 메브의 황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최초의 분류는 성적 분류이다. 에덴이라는 <원초적 전체>에서 쫓겨나올 때, 인간은 각기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되어 쫓겨난다. 싸움에 예정된 황소들이 각기 흰색과 갈색 황소라는 것도 이 이야기의 후속담으로 진행되는 『쿨리의...』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적 차원을 가지는 본질적 전쟁(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가정을 하게 한다.

밤이 되자, 아일랜드인들의 귀에는 으르렁대고 울부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날 밤, 두 마리 황소는 아일랜드 전역을 돌아다녔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우 원초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메브는 전쟁을 위해서 코노트인들뿐 아니라, 아일랜드인들 전체로 연합군을 꾸렸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코노트인들과 얼스터인들뿐 아니라, 아일랜드인들 전체에게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 하에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작품에서 계속 지명의 유래가 설명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이야기는 엘리아데가 말한 바 있는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일종의 기원 설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다음의 괴상한 대목은 쉽게 설명된다. 종전(終戰)의 순간에, 메브는 갑자기 오줌을 누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끼고 퍼구스에게 그녀를 보호해 주는 방패를 들고 있으라고 명한다. 퍼구스가 좋지 않은 순간이라고 말하자 메브가 대답한다 :

어찌되었든, 나는 달리 어쩔 수가 없다. 오줌을 싸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메브는 오줌을 썼다. **오줌은 거대한 구멍이 세 개**를 메웠다. 각각의 구멍이 안에는 방앗간의 연자맷돌을 돌아가게 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 후로 그 호수는 푸알 메브Fual Medb(“메브의 오줌”)라고 불리게 되었다.

장 마르칼은 이 대목을 아주 아름답게 해설한다.

이것은 메브에게는 終戰에 대한 이미지화한, 그리고 약간은 현실적인 표현이다. 사실, 그녀의 군대의 패배는 그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원하던 황소를 데려갔으므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탈소유d possession의 제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 그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녀의 전사적 분노를 던져버린다.⁵⁸⁾

그러나 이것은 이 원시적인 여신의 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해석인 것처럼 보인다. 성적 환기력이 분명한 이 대목은 오히려 일종의 천지창조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사실 거녀(巨女)의 오줌으로부터 태어난 호수, 바다 등에 관한 민담은 세계 전역에 퍼져 있다. 잔인하고 맹목적인 원소들의 투쟁과 짝지워진 천지창조 장면은 신화적으로 전혀 무리 없는 해석을 허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원초적인 물질들의 투쟁의 이야기 안에 어떤 선과 악의 개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켈트적 상상력은 물질(자연)=악, 정신(인간)=선으로 설정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의 입장을 진작에 확립했던 그리스-기독교 신화 체계의 세계 해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그것은, 켈트적 사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연

58) Jean Markale, *L'Épopée celtique de l'Irlande*, op.cit., p.125.

과 인간의 자리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자연의 지극히 작은 한 일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휘몰아치며 변화하는 자연의 싸움, 또는 변전의 한 복판 안에 있는 것이다. 켈트적 예술 형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켈트의 서』에 나타나는 장식문자들은 이러한 켈트적 특성을 아름답게 구현한다. 모든 것은 소용돌이치며 한데 얽혀 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바라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자리가 보인다. 켈트족은 그렇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색채를 가지고 인간의 몫을 구현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웨일즈로 옮겨가면, 켈트 여신들은 아일랜드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진행된 가부장제 하에서 미묘한 특징들을 드러낸다. 그녀들은 몰락한 지위 안에서 예전의 여신다운 권위를 굴절된 방식으로 표출한다. 리아논, 아리안로드, 블로다이웨드, 브란웬 등의 여신들은 아일랜드의 거칠고 야만적인 여신들과는 달리, 훨씬 더 부드럽고 길들여진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위대한 여신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변질된 방식으로 통합시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켈트 여신들이 기독교 맥락으로 옮겨오면서 성배전설군 안에 편입되면, 양상은 전혀 달라져서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여신들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러나 그리스-로마 유형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귀네비어, 모르간, 비비안, 루네드, 노새를 탄 추녀 등 매력적인 여신들이 성배 전설군 안을 배회한다. 이 논문에서는 아일랜드 여신들 극히 일부만을 다루었다.

4. 결론

켈트적인 것은 서구 문명사 안에서 간헐적으로 부활했던 경험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주변 문화에 불과했다. 최근에 서구의 문화적 지평 안에서 켈트적인 것이 상당히 규모있게 되돌아오는 경향이 감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켈트적인 것이 대변에 중심으로 진입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켈트적인 것이 사람들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매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켈트 신화를 주제로 한 만화⁵⁹⁾가 연속물로 계속 발행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수준 높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켈트음악이 대대적인 성공을 구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로리앙Lorient에서는 매년 대규모의 켈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켈트는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부활하고 있다. 근대가 그리스-로마/기독교 문화로 대변되는 합리성의 문화였다면, 그 대안 문화로서 꿈과 몽환성에 기댄 풍부한 상상력에 기반한 켈트 문화는 탈근대 맥락에서 문화 수용자들을 매혹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켈트 전통이 남아있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에서 뛰어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오씨』, 『해리포터』 등)도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켈트적인 것의 부활은 문화사적으로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켈트적인 것의 정수는 켈트족의 신화 속에 들어있다. 켈트 신화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전혀 다른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탈근대적인 미학과 철학의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켈트 여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특징들을 드러내 보인다. 그녀들은 대부분의 경우 결혼하지 않으며, 결혼했다고 해도

59) 큰 성공을 거둔 『아스테릭스』 시리즈가 켈트 신화를 주제로 한 만화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부부의 권력관계에서 남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녀들은 남성들의 부속물이 아니며,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그녀들은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켈트 여신들은 남성에 의해 선택당하지 않으며,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남성을 희생시킬지언정, 남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법은 없다. 그녀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아도 전혀 낡지 않았다고 할 만큼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 요컨대, 켈트 여신들은 그리스-로마 문명과, 그 문명을 계승한 기독교 문명 안에서 여신들과 여성들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비극적 수동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신화는 최근에 들어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주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독서 시장에서 신화의 편중 현상은 심각하다. ‘신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로마 신화만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리스·로마 신화는 가장 전형적인 가부장 신화이다. 독자들이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판적으로 읽는 시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독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그런 위험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켈트 신화를 발굴하고 소개할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켈트 신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서혜숙, 『아일랜드 요정 이야기』,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 다케루베 노부야키 外, 박수정 옮김, 『켈트 복구의 신들』, 들녘, 2000.
- 찰스 스콰이어, 나영균·전수용 옮김, 『켈트 신화와 전설』, 황소자리, 2009.
- Yann Brékilien, *Mythologie celtique*, Ed. du Rocher, Paris, 2000.
- Jean-Louis Brunaux, *Les Druides*, Seuil, Paris, 2000.
- Robert Graves, *Les Mythes celtiques*, Ed. Rocher, Paris, 2000.
- Miranda Jane Green, *Mythes celtiques*, Points, Paris, 2003.
- Ch. T. Le Roux, Carnac, *Locmariaquer et Gavrinis*, Ed. Ouest-France, Rennes, 2009.
- F. Le Roux, Ch-J. Guyonvarc'h, *La Souveraineté guerrière de l'Irlande*, Gallimard, Paris, 2006.
- Ch-J. Guyonvarc'h, *Razzia des Vaches de Cooley*, Gallimard, Paris, 1994.
- Jean Markale, *L'Épopée celtique de l'Irlande*, Payot, Paris, 1993.
- Jean Markale, *La Femme Celte*, Payot, Paris, 1987.
- Jean Markale, *Les Dames du Graal*, Pygmalion, Paris, 1999.
- Thierry Jolif, *Tradition celtique*, Pardès, Puisseaux, 2001.
- Juliette Wood, *Le livre de la sagesse celte*, Grund, Paris, 2001.
- 이건우, 「보편적 신화소로서의 주권여신」,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2003, 269~304쪽.

Abstract

A study on celtic goddesses-focusing on irish goddesses

Kim, Jeong-ran

The Celts is a race that does not exist, but their culture is still powerfully influential. Celtic culture and Greek-Roman culture is greatly different for the fact that Celtic culture puts more considerations on nature, dream and fantasy. It is also reflected on Celtic attitudes towards women. Same as all Indo-European societies, Celtic society was also a patriarchal society, but it allowed outstanding rights to women and highly appreciated them. This characteristic is also reflected in the Celtic mythology. Celtic goddesses are in an independent existence not subordinates to male gods. They are acting independently and not afraid in revealing their own sexuality.

The independent feature of the Celtic goddesses is clear in a mythological concept of 'Sovereign Goddess'. In Celtic mythology, the possessor of royal authority is not male kings, but goddesses. Royal authority does not come from the existence of kings but that of goddesses. They are the ultimate possessor of royal power, and just delegate it temporarily to kings.

The Celtic culture is greatly resurrecting in Europe. In this cultural phenomenon, it is noteworthy to find a position of Celtic myth as alternative discourse. In the postmodern context, where imagination and fantasy are important, the cultural competitiveness of the Celtic myth is evident. In the very center of this competitiveness, the Celtic goddesses myth exists.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Celtic goddesses.

Keywords : The Celts, Celtic mythology, Sovereign Goddess, the Celtic Goddess, Danu, Macha, Medb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서·평

조현준 | 나를 성찰하며 타인과 공존하기

: 임옥희의 뱀파이어 시학과 주디스 버틀러의 타자의 정치학
- 임옥희,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여이연, 2010)

윤지영 | 근대 미학의 경계 안에서 페미니즘 미학은 가능한가

-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책세상, 2009)